부산시, 5가지 테마 '웰니스 관광지' 발굴

지난해 선정된 6곳 고도화
올해 신규 대상지 공모 실시
스테이·푸드 분야 추가 확대

부산시청. /부산시

부산시가 목적형 관광 도시(SIT)로 도약하기 위해 차별화된 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선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지난해 최초로 선정된 부산형 웰니스 관광지 6곳을 고도화하고, '2024년 신규 웰니스 관광지' 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부산형 웰니스 관광지는 자연(숲·해양), 뷰티·스파, 요가·명상 3가지 테마 분야에서 선정됐다. ▲부산어린이대공원 치유의 숲 ▲아홉산숲 ▲광안리 섭존(SUP Zone) ▲클럽디오아시스 ▲내원정사 ▲홍법사다. 부산 특화 해양·숲·치유의 도시 특성이 어우러진 힐링의 장소이자 위로의 공간이다.

시와 공사는 이를 대상으로 관광지별 맞춤형 웰니스 프로그램 개발, 수용 태세 개선, 마케팅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 중이다.

올해는 스테이, 푸드 테마가 추가된 총 5가지 분야로 확대해 부산형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7일까지 16개 구·군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관광지가 보유한 역량과 인프라, 성장 가능성 등 다방면으로 평가해 부산형 웰니스 관광지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관광지는 시설별 수요조사를 통해 브랜딩과 홍보 마케팅 등 원하는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시는 '부산 웰니스 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해 웰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부산 웰니스 콘텐츠 운영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총 6회(회당 2시간),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 대상자로는 시민, 부산 웰니스 분야 종사자 및 관련 전공·자격 소지자를 우대한다. 교육 수료자는 향후 운영되는 부산 웰니스 관광 콘텐츠(원데이&스테이 체험프로그램)와 관련해 관광객 응대 및 운영 등 콘텐츠 운영 인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박근록 시 관광마이스국장은 "힐링과 치유 중심의 관광 유행(트렌드)에 맞춰 부산 특화 웰니스 관광지를 발굴하고 콘텐츠 고도화를 지원해 더 특별한 목적형 관광 도시 부산 도약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목포시,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 도약

목포신항, 99MW 규모 기자재 적치
오는 12월 자은도 해상으로 준공
해상풍력 사업 전주기 지원 허브항만

목포시가 국내 해상풍력 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다.

목포신항 부두에는 국내 최초의 민간주도 해상풍력 사업(전남해상풍력, SK E&S)의 터빈, 블레이드, 타워 등 99MW(메가와트) 규모의 기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이달부터 자은도 해상으로 운송되어 오는 12월 준공 및 상업운전이 예정되어 있다.

목포신항은 국내에서 가장 좋은 여건을 갖춘 해상풍력 지원항만으로, 기자재의 생산과 조립, 해상운송은 물론 R&D(연구개발)와 기업지원 등 사업 전주기를 지원하는 허브항만으로 산업 생태계를 선도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세계 1위 터빈 제조사인 '베스타스'와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와 3,000억원 규모의 터빈공장 설립 투자협약이 체결된 바 있고, 6월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신항 12만 6천여평이 지정되는 등 그 가치가 빛을 발하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신항을 중심으로 전남의 해상풍력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해상풍력이 우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세대에게 더 큰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대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속에서 목포시를 중심으로 한 전남 서남권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한 지역에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북도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산식품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경북도, 수산가공식품 수출 지원 박차

캐나다·베트남·인니 등 홍보 예정

경북도가 도내 기업들의 수산가공식품 수출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오는 10월에 캐나다와 베트남시장을 공략한다. 캐나다에서는 토론토 갤러리아 한인 마트 3개 지점에서 경북 11개사의 수산기업 30여개의 품목으로 홍보판촉전을 열고 현지바이어를 초청한 수출상담회도 함께 진행한다. 베트남 호치민에서는 경북 해양수산기업 7개사가 지역 바이어를 찾아가는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11월는 인도네시아국제식품박람회에 6개사와 참가해 K-푸드를 알릴 예정이다.

앞선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식품박람회에 참가해 수산식품의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섰었다. 호주 식품박람회(Fine Food Australia)는 1984년부터 40회에 거쳐 식품산업을 위한 무역행사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전 세계 미국, 중국 등 12개국에서 850사가 참가했다.

경북에서는 4개 기업이 참가해 상담실적 47건 수출 계약 1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경북도는 오는 2027년 수산물 수출 3억 달러 이상 달성 위한 '경북 블루푸드 수출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진도군, 사업비 2392억 확보… '역대최대'

민선8기 2년간 성과

진도군(군수 김희수)이 민선8기 2년간(2023~2024년) 역대 최대 공모사업비 106건에 2392억원을 확보했다.

취임 이후 지속적인 인적 쇄신과 행정혁신 등 새로운 변화가 성과 창출로 이어지면서 '민생활력을 위한 진도군의 미래도약 새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진도군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정부와 전남도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서 최대 공모사업비를 확보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을 마련했다.

2024년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서망항) 30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 200억원, 민간협력 지역상생협약 122억원, 2023년에는 전남형 균형발전사업 300억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200억원 등 대규모 국비 재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특히, 농림해양수산 부흥을 위해 2023년에는 전체 진도군 예산의 30%가 넘는 1853억원의 예산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성했고, 2024년에도 17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수산 등에 종사하는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진도군은 최근, 여름철 고수온 피해에 대비해 전복종자 양식어가 등에 생산장려금 약 4억 3000만원을 지원했고, 쌀 생산농가 수매보전 지원사업 20억원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도군은 '다 함께 잘 사는 진도' 구현을 위해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통한 김 생산, 가공, 유통 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 실용화센터를 건립하여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을 육성, 꿀벌자원육성 품종 증식장 구축 등 지속가능한 농수산업육성을 위한 미래도약이 기대된다. /진도(전남)=이대호 기자

광주·전남, '자살·고독사' 예방대책 시급

공공임대주택 내 사례, 전국 두 번째

최근 5년간 광주·전남 공공임대주택 내 자살·고독사 사례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취약층에 대한 관심과 예방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관리 임대주택(영구·국민·공공임대) 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간 자살 229건, 고독사 176건 등 총 405건이 발생했다. 지사별로 보면 광주·전남은 52건으로 부산·울산(74건)에 이어 전국 12개 지사 중 두 번째로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광주·전남에서는 고독사가 ▲2019년 7건 ▲2020년 6건 ▲2021년 1건 ▲2022년3건 ▲2023년 2건 ▲2024년 6건 등 5년간 25건이 발생했다.

자살 사고는 같은 기간 ▲2019년 8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4건 ▲2023년 3건 ▲2024년 5건 등 27건으로 파악됐다.

이춘석 의원은 "우리 사회가 파편화되면서 자살·고독사 등 외로운 사망 사례가 늘고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점검하고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양수녕 기자 ysn6313@

지역 이모저모

영암 월출도가 '보라'

전남도
이달 전통주, 영암 월출도가 '보라'

전남도가 9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이름처럼 은은하고 그윽하며 보랏빛이 매력적인 영암 월출도가의 '보라'를 선정했다.

'보라'는 영암의 유기농멥쌀과 찹쌀, 유기농 자색고구마, 국산누룩과 물로만 빚고 150일의 긴 숙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자색고구마 때문에 보랏빛을 띠며 동일한 이름으로 탁주와 약주를 선보이고 있다.

두 제품 모두 18도의 이양주로 묵직하면서도 풍부한 산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양수녕 기자

신안군
위생업소 순환경제 참여 독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내 위생업소에서 자연순환 친환경 소재의 생분해 식탁보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실시된 '플라스틱 제로(Plastic Zero) 2050' 선포식에서 순환경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연 순환형 정책에 위생업소들도 적극 동참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진주시
여행자들 위한 '트래블라운지'

경남 진주시는 망경동 남가람공원에 진주를 찾는 여행자들을 위한 '진주 트래블라운지'를 본격 운영한다.

진주 트래블라운지는 야간관광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여행자센터로 여행객들에게 진주관광을 안내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남가람공원내 유휴건물(옛 중앙광장 매점)을 리모델링해 조성했다.

트래블라운지에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상주해 인근 배건네마을, 철도문화공원, 소망진산 유등공원 등을 소개하며 찾는 이들에게 더욱 알찬 여행 경험을 제공한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영양군
저층 밀집구역 거주환경 개선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영양읍 서부리 중 일부 지역(약 13.6만㎡)을 대상으로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도전한다.

정부는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다세대·단독 등 4층 이하 노후 저층 주거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영양군은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주민은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제도적 지원 및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데 목적이 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